

ISSN 1229-8565 (print) ISSN 2287-5190 (on-line)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6(3) : 575~587, 2015
Korean J Community Living Sci 26(3) : 575~587, 2015
<http://dx.doi.org/10.7856/kjcls.2015.26.3.575>

대학생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생활환경 요인

박응임·배정인·이혜상¹⁾·안건미²⁾·정운선³⁾†

안동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안동대학교 식품영양학과¹⁾·안동대학교 경제학과²⁾·안동대학교 의류학과³⁾

Living-Environment Factors Influencing the Happiness Index of College Students

Ung Im Park · Jeong In Bae · Hye Sang Lee¹⁾ · Geun Mee Ahn²⁾ · Woon Seon Jeong³⁾†

Dep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Andong National University, Andong, Korea

Dept. of Food & Nutrition, Andong National University, Andong, Korea¹⁾

Dept. of Economics, Andong National University, Andong, Korea²⁾

Dept. of Clothing & Textiles, Andong National University, Andong, Korea³⁾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economic and psychological factors as well as dietary, clothing, and dwelling lifestyle factors that influence the happiness of college students. For this, a survey of 570 students (222 males and 348 females) was conducted using 72 categories, including general characteristics, the happiness index, the health index, and economic, psychological, dietary, clothing, and dwelling factors. Gender differences in student characteristics were analyzed through an independent samples t-test, and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were analyzed using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Variables showing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the happiness index were classified as independent variables for the dependent variable of the happiness index and used for a regression analysis. The happiness index showed no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 but it was higher for males than for females. Males scoring higher in the economic lifestyle and self-esteem, among others, were more likely to think practically, and their economic lifestyles were relatively rational. In both genders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the happiness index and allowance satisfaction, the allowance level, the economic lifestyle, self-esteem, major satisfaction, and peer satisfaction. Variables more likely to influence the happiness index for males were self-esteem, peer satisfaction, the economic level, major satisfaction, and regular exercise, whereas those for females were self-esteem, peer satisfaction, and stress eating. These results indicate that emotional factors such as self-esteem and peer satisfaction were more likely to influence the happiness index of college students for both genders than economic and physical factors.

Key words: happiness index, living-environment factors, college student, gender difference

This work was supported by a grant from 2015 Research Funds of Andong National University.

접수일: 2015년 7월 17일 심사일: 2015년 8월 17일 게재확정일: 2015년 8월 19일

†Corresponding Author: Woon Seon Jeong Tel: 82-54-820-5501 E-mail: wsj@anu.ac.kr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 서론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서 이 시기는 자유롭고 자기만족감을 추구하며 자기개발에 초점을 두어 진로를 설정하고,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생활하는 청년기 특유의 에너지와 열정을 엿볼 수 있는 시기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많은 대학생들에게서 청년기의 긍정적인 모습들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다. 장기적인 경제침체와 청년실업률의 증가로 인해 대학생들은 취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커지고, 취업준비를 위해 학점관리에서부터 외국어 능력 향상, 각종 자격증 취득, 봉사활동, 인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스펙을 쌓아야 하는 부담과 치열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뿐만 아니라 등록금과 생활비 마련으로 인해 학업과 동시에 아르바이트에 종사하고 있는 대학생이 많아 생활의 질이 그리 높다고 볼 수 없어 우리나라 많은 대학생의 행복은 위협을 받고 있다. 2015년 유엔에서 발표한 행복보고서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행복순위는 47위로 낮은 편이다(Helliwell et al. 2015). 반면에 자살률은 2003년부터 2012년까지 10년 동안 OECD 국가 중에서 1위의 불명예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학생이 속한 20대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인 점(Statistics Korea 2013)을 고려할 때 자살률이 높은 대학생은 행복지수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삶에서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은 행복이다. 흔히 행복에 대해 이야기할 때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대학생들에게 행복의 조건에 대해 질문해보면, 다수가 '돈'을 첫 번째로 답한다. 한국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대표적 요인에 대한 사람들의 자유로운 생각을 질적으로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 여가생활, 화목한 가정, 원만한 인간관계, 건강, 학업성취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Park & Kim 2006). 이처럼 사람들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이 중요하다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나,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은 실제와는 다를 수 있다. 이를 뒷받침 하는 연구에

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본 결과, 한국 사람들의 삶의 질은 인간관계로부터 받는 정서적 지원에 의해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Kim & Park 2006; Park & Kim 2009), 행복은 객관적인 외적 요건보다는 심리적 요인에 의해 더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Suh & Koo 2011). 인간에게 있어서 기본적인 생물학적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소득은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선에서 행복에 기여할 수 있을 뿐이고, 배고픔이 충족된 상태에서는 추가적 소득이 행복에 미치는 영향은 줄어들며, 대신 심리적 욕구의 충족이 행복과 밀접하게 관련된다(Cho 2011; Heo et al. 2014). 즉, 돈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 정서적 지원이나 자기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낮으므로, 돈은 행복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으나 필요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Park & Kim 2009).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Park et al. 2009)에서 효능감이 높을수록 우울과 스트레스가 현저하게 낮았으며, 또 다른 연구(Park & Kim 2009)에서는 자기효능감이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 행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개인의 심리적 특성 중 하나인 자아존중감과 행복과의 관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역량 또는 유능함과 자아가치에 대한 평가적 신념으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지각과 평가는 개인의 적응 및 건전한 인성 발달과 자아실현에 중요한 요소가 되며(Park et al. 2005), 행복지수에 심리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Nam & Lee 2014).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과 행복과의 관련성을 알아본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대학생의 행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 Mun 2014).

한편, 대학생의 행복에 대해 질적 접근으로 알아본 Cho(2011)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들은 스스로 삶의 목표를 세우고 즐거움을 느끼며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그 후에 얻어지는 성취감을 느낄 때 행복해했으며, 현재 과정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며 좋아하는 활동을 즐기으로써 행복해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신

의 생활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통제해 나갈 때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대학생에게 있어 학업성취를 통한 성공경험은 자신감을 증진시키고 행복수준을 높이는 요소가 되며(Lim et al. 2007), 전공만족도는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Nam & Lee 2014). 또한 대인관계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로서 행복의 핵심요소가 되므로(Lee 2011), 친구관계에 대한 만족도 역시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학생의 행복과 관련한 요인들을 밝히려는 연구들은 경제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에 대부분 그치고 있으며(Kim & Park 2006; Park & Kim 2006; Park & Kim 2009; Suh et al. 2010; Cho 2011; Heo et al. 2014), 의식주를 포함한 실제 생활에 관련한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여 행복에 대해 알아보고 시도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의식주 분야에서 행복지수와와의 관련성에 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단일분야의 연구들로 이루어졌다. 식생활의 경우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대학생의 경우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지 않는 경우에 비해 행복지수가 더 높았다는 연구(Nam & Lee 2014)가 있으며, 의생활의 경우는 20대~40대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Kuh & Lee 1999)에서 행복의 가치가 높을수록 의복의 구매만족도가 높았고, 의복 구매 후의 불만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의복의 실용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대학생의 행복과 의생활 관련 연구는 별로 없으나, Han & Chung(2000)과 Park et al.(2005)의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가치관과 의복구매행동에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즉 디자인이 의복구매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치관의 수준에 따라 대학생들의 의복구매행동이 다르다고 하였다(Han & Chung 2000).

한편 주생활의 경우는 대학생의 행복과의 관련을 밝힌 연구가 거의 없다. 그런데 대학생의 주거가치에 대해 적극적인 유형이 소극적 유형에 비해 주거만족도가 높음을 밝힌 연구(Kim & Noh 2008)와 함께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구들(Park 2011; Bae 2012)을 고려할 때, 적극적인 주거가치의 추구 여부가 대학생의 행복과 관련 있

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대학생 시기는 집을 떠나 기숙사 또는 자취생활을 하면서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의식주 생활수준의 질이 위협받을 가능성이 크고 개인마다 생활방식의 차이가 있으므로, 이러한 요인들이 행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은 의의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요인과 경제적 요인 및 심리적 요인이 행복을 결정하는데 상대적으로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앞으로 대학생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함의를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제생활관련 요인과 심리적 요인뿐만 아니라 식생활, 의생활, 그리고 주생활 관련 요인이 대학생의 행복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행복지수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변인들을 파악하고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밝히고자 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경상북도 소재의 4년제 A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570명(남 222명, 여 348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행복지수, 건강, 식·의·주, 경제, 심리 분야의 72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한 후 이에 동의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을 임의추출 하였다. 2014년 5월에 69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해 내용이 부적절한 문항과 응답률이 낮은 문항을 삭제하고 설문지를 수정하였다. 본 조사는 2014년 9월 1일~12일에 수행되었으며, 강의실에서 수업 후에 설문조사에 동의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전체 배부해 응답하게 한 후 회수하였다. 총 594부의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이중 응답이 부실한 24부를 제외하고 570부를 분석대상으로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일반적 특성은 연령, 학년, 성별, 거주형태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행복지수, 건강과 식생활·의생활·주생활 관련 변인, 경제생활 관련 변인 및 심리적 변인들을 측정하였다. 연령, 학년, 성별, 거주형태, 용돈 수준의 문항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문항들은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었다.

행복지수는 한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국내연구진에 의해 개발된 '한국인의 행복지수' 척도(Suh et al. 2010)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9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삶의 만족감(개인의 성취·성격·건강)을 측정하는 3문항과 긍정적 정서(즐거움, 행복한, 편안한) 3문항, 그리고 부정적 정서(짜증나는, 부정적인, 무기력한)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복지수 산출은 삶의 만족감과 긍정적 정서 6문항에 대한 응답의 합에서 부정적 정서 3문항에 대한 응답의 합을 뺀 점수를 백분율 점수로 환산한 것이다. Suh et al.(2010)의 연구에서 이 척도의 신뢰도 α 는 .862~.88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86으로 나타났다.

건강과 식생활 관련 변인에서 주관적 비만인식은 '살찐다고 생각한다'라는 설문문항에 대해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 비만인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규칙적 운동은 '운동을 규칙적으로 한다'라는 설문 문항에, 수면만족도는 '피로가 회복될 정도로 만족스럽게 잠을 잔다'라는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스트레스성 과식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식을 더 많이 먹는다'라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Chung et al. 2007). 균형잡힌 식생활은 '싫어하는 음식은 먹지 않는다', '처음 먹는 음식에 대해 거부감이 없이 잘 먹는다', '식사를 할 때 모든 반찬을 골고루 먹는다'의 3문항(Lee et al. 2003)으로 측정하였고, 신뢰도 α 는 .72였다.

의생활 관련 변인은 의복의 실용성을 제한한 연구(Kuh & Lee 1999)와 디자인이 의복구매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연구(Han & Chung 2000)를 바탕으로 직접 제작한 7문항을 의생활심미성과 의생활실용성으로 나누었다. 의생활심미성은 '좀 더 새롭고 독특한 옷을 선택한다', '눈에 띄고 특이한 디자인의 옷을 즐겨 입는다', '유행하는 옷을 입는 편이다'의 3문항에 대한 내용, 의생활실용성은 '착용감이 좋은 옷을 구매하는 편이다', '세탁과 관리가 편한 옷을 즐겨 입는다', '오래 입을 수 있는 옷을 주로 구매한다', '활동

하기 편한 옷을 즐겨 입는다'의 4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의생활심미성과 의생활실용성의 신뢰도 α 는 각각 .709와 .808이었다.

주생활 관련 변인은 주거가치의 유형에 관한 선행연구(Hwang & Yang 2000; Ha & Yoon 2003; Kim & Noh 2008; Kim & Han 2012; Lee & Park 2013)를 참조하여, 가장 대표적인 주거가치로서 기능성, 심미성, 경제성을 선정하였고 주생활에 있어서 일반적 대학생에게 자기결정권이 있다고 판단되는 범주에서 문항을 작성하였다. 기능성은 '실내를 디자인할 때 기능적인 면 중시', '생활의 편리함 중시', '사용하기 편한 가구 선택'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심미성은 '실내를 디자인할 때 아름다움을 중시', '아름다운 장식품 선택', '독특한 실내디자인', '나만의 개성을 나타내는 물건'의 4문항으로, 경제성은 '실내를 디자인할 때 비용 중시', '가구나 장식품 고를 때 가격 중요'라는 2문항으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항목을 중시하고 있음을 뜻하며, 신뢰도 α 는 기능성 .785, 심미성 .791, 그리고 경제성은 .757로 나타났다.

경제생활 관련 변수에서 용돈만족도는 '한 달 사용하는 금액이 충분하다', 경제수준은 '가정의 경제적 수준을 높다고 생각한다', 경제생활태도는 '신중하다', '알뜰하다', '합리적이다'의 3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경제생활태도의 신뢰도 α 는 .816이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용돈만족도와 경제수준이 높고 경제생활태도는 더 신중하고 알뜰하고 합리적인 것을 의미한다. 용돈수준은 용돈이 없는 것에서부터 60만원 이상까지 매 10만원 단위로 간격을 나누어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심리 관련 변인은 자아존중감과 전공만족도 및 친구만족도를 측정하였다. 자아존중감은 Rosenberg가 개발한 자아존중감 척도를 사용하였다(Marsh 1993에서 재인용). 이 척도는 자신감과 자기 가치감 등을 포함하는 단일차원의 일반적 특성으로 자아존중감을 정의하고 있으며,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 5점 리커트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다른 설문 문항과 통일시키기 위해 7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신뢰도 α 는 .871로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전공에 대해 만족한다'로, 친구만족도는 '친구관계에 대해 만족한다'의 단일 문

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더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3. 자료분석

대상자에 대한 모든 자료는 윈도우용 SPSS Statistics 21.0(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를 하였다. 각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분석하였고, 대상자특성에 대한 남녀별 차이는 독립표본 t-test로, 변인들 간의 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행복지수 관련요인 분석을 위해 행복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상관분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단계선택 회귀분석을 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 < .0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 570명 중 남학생은 222명(38.9%)이었고

여학생은 348명(61.1%)으로 여학생의 수가 더 많았고, 학년은 1학년 120명(21.1%), 2학년 224명(39.3%), 3학년 150명(26.3%), 4학년 74명(13.0%)으로 나타났다. 조사 당시의 거주 형태는 자취가 280명(49.1%), 기숙사 생활 188명(33.0%), 가족과 함께 동거가 98명(17.2%), 그리고 기타 4명(0.7%)으로 자취가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로 나타났으며 80% 이상의 대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이나 자취로 가족과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 행복지수 및 주요 변인별 성별 차이

행복지수와 주요 변인들이 성별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는지 알아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행복지수는 남학생이 평균 65.33이었고 여학생은 평균 62.83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았지만 이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Suh et al.(2010)의 연구에서 한국인의 행복지수 평균이 63.22였던 것과 비교하

Table 1. Gender differences in characteristics of college students

	Male (N=222)	Female (N=348)	t-value
Happiness index	65.33 ± 16.66 ¹⁾	62.83 ± 14.19	1.92
BMI	22.16 ± 2.86	20.22 ± 2.27	8.76***
Subjective obesity	3.95 ± 2.11	5.09 ± 1.80	-6.85***
Regular exercise	3.91 ± 1.75	3.24 ± 1.65	4.51***
Sleep satisfaction	3.95 ± 1.74	3.91 ± 1.59	.26
Nutritional balance	4.64 ± 0.85	4.41 ± 0.85	2.96**
Stress eating	3.60 ± 1.93	4.71 ± 1.77	-6.85***
Clothing aesthetics	3.72 ± 1.29	3.80 ± 1.18	-.80
Clothing practicality	5.14 ± 1.08	4.83 ± 0.97	3.38**
Dwelling aesthetics	5.18 ± 1.14	5.37 ± 0.99	-1.97*
Dwelling functionality	5.95 ± 0.80	5.74 ± 0.86	2.88**
Allowance level	3.84 ± 1.73	4.10 ± 1.44	-1.89
Allowance satisfaction	4.79 ± 1.46	4.58 ± 1.19	1.86
Economic level	3.79 ± 1.12	3.84 ± 1.05	-.58
Economic lifestyle	4.61 ± 1.15	4.41 ± 1.13	1.98*
Self-esteem	5.07 ± 1.04	4.78 ± 0.89	3.63***
Major satisfaction	4.78 ± 1.45	4.57 ± 1.27	1.78
Peer satisfaction	5.39 ± 1.29	5.19 ± 1.12	1.98*

¹⁾Mean ± SD, * $p < .05$, ** $p < .01$, *** $p < .001$.

면 여학생은 행복지수가 더 낮게 나타났고, 남학생은 행복지수가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체질량지수(BMI)는 남학생이 평균 22.2 kg/m², 여학생이 평균 20.2 kg/m²로서 남자가 여자에 비해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t=8.76, p<.001$). 또한 남녀 모두의 평균값이 정상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8.5 \leq \text{BMI} \leq 22.9$),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학생은 자신이 살찐다고 생각함으로써 주관적 비만의식이 남학생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6.85, p<.001$). 이러한 결과는 정상체중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주관적 비만도를 측정할 결과와도 유사하여(Jeong et al. 2003), 초등학생과 대학생의 나이 차이에 상관없이 성별에 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의생활심미성은 남녀 모두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었으며 성별 차이가 없었으나, 의생활실용성은 남녀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성별에도 차이가 나타나($t=3.38, p<.01$),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의생활에서 실용적인 면을 더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대생의 신체이미지와 의복행동에 관한 연구(Kim & Lim 2010)에서는 외모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기성복에 만족하며 의복의 심미성과 유행성을 추구하는 데 비해, 외모관리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은 의복의 관리성을 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대~40대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의복쇼핑성향과 가치의식을 요인 분석한 연구(Kuh & Lee 1999)에서는 행복의 가치가 높을수록 의복 구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으며, 구매 후 불만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소비자와 제조업자 모두 의복의 관리성, 내구성 등 의복의 실용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해 볼 때, 비록 이 연구에서는 측정하지 않았지만 의복구매 후 만족도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주거실내공간에 관한 태도를 기능성, 심미성, 경제성으로 나누어 조사한 결과, 기능성($t=2.88, p<.01$)과 심미성($t=-1.97, p<.05$)에서 남녀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기능성을 중시하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심미성을 중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거공간에 대한 남녀 대학생의 감성어휘

선호도를 조사한 선행연구(Park et al. 2011)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실용적인'에 적극적으로 반응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 하겠다.

경제생활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경제생활 태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낸 것($t=1.98, p<.05$)으로 볼 때,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보다 더 신중하고 알뜰하며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의생활의 실용성과 주생활의 기능성을 중시하고, 여학생은 심미성을 중시한다는 것이 남녀의 경제생활태도 차이를 설명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Lee(2004)의 연구에서도 남자 대학생이 여자 대학생에 비해 신중하고 알뜰한 구매를 하며 스스로를 더 합리적인 소비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비록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부모에게서 받고 있는 용돈의 수준과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서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에 용돈만족도는 남학생이 더 높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의복이나 화장품 구입 등 소비할 곳이 많아 더 많은 용돈을 받고 있음에도 용돈에 대해 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Lee(2004)의 연구에서도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보다 용돈이 자주 부족하거나 항상 부족하다고 응답한 학생의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심리 관련 변인에서 자아존중감은 7점 만점에 남학생은 평균 5.07, 여학생은 평균 4.78로 중간보다 더 상위의 점수를 나타내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남학생의 자아존중감은 여학생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t=3.63, p<.001$), 기존의 연구(Jeon & Bae 2007)와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전공만족도와 친구만족도에서도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으며, 친구만족도의 경우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더 높았다($t=1.98, p<.05$).

이상을 종합해보면, 최근 들어 '알파 걸(Alpha Girl)'이라고 명명하면서 남학생을 능가하는 여학생들에 대해 세상이 주목하였지만, 이 연구에서는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이 경제생활태도와 자아존중감을 비롯한 다

양한 변인에서 더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보다 실용적이며 합리적인 경제생활태도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미래의 직업, 행동에 대한 책임감, 미래의 결혼생활에 대한 준비 등 성인기 준비 차원에서 더 성숙함을 나타내었다고 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Jang 2010)와 맥락을 같이 하는 결과로, 이러한 경향이 이들 연구대상 집단의 특성인지 일반대상의 특성인지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 행복지수와 주요 변인간의 상관관계

행복지수와 주요 변인들 간에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행복지수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지만(Table 1, $t=1.92$, $p=.055$)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점수가 더 높았고,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들이 많아 상관관계는 남학생과 여학생을 구분하여 살펴보았다(Table 2, Table 3).

건강과 식생활 관련 변인에서 남학생의 경우 행복지수와 유의한 상관을 나타낸 변인은 스트레스성 과식($r=-.155$, $p<.05$)으로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Table 2). 이에 비해 여학생의 경우는 주관적 비만 인식($r=-.128$, $p<.05$)과 스트레스성 과식($r=-.146$, $p<.01$)에서 행복지수와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Table 3). 여학생은 남학생에 비해 외모나 체형에 관심이 매우 높아서 BMI가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더 살찐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므로(Table 1), 이것이 행복지수와의 관련성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여대생에서 올바른 신체상과 적정체중에 대한 인식은 바람직한 식생활과 관련성이 있다는 선행연구(Park 2009)의 결과와 같이, 이 연구에서도 주관적 비만인식과 스트레스성 과식은 남녀 모두에서 높은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균형 잡힌 식생활과 주관적 비만인식은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Chung et al.(2007)의 연구에서도 남녀 대학생 모두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대생의 과식빈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식을 더 많이 먹는 것이 대학생의 행복지수를

낮추는 원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스트레스를 받을 때 음식을 먹으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행복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남학생에서만 행복지수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낸 변인은 규칙적 운동($r=.226$, $p<.01$)과 수면만족도($r=.191$, $p<.01$)였다. 즉 남학생은 규칙적인 운동과 수면만족을 통해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여학생의 비율이 87.3%인 Nam & Lee(2014)의 연구에서는 평소 땀을 흘릴 정도로 운동하는지의 여부와 행복지수가 관련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나, 수면 시간과 행복지수는 관련성을 나타내었다고 한다. 이 연구에서는 수면시간 대신 수면만족도를 측정하였는데,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상관계수가 .102로 변인간 관련성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의생활심미성 및 의생활실용성과 주요변인 간 관련성을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의생활심미성의 경우 남학생은 변인 간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여학생은 BMI가 낮고($r=-.110$, $p<.05$) 자신의 전공에 대한 만족감이 높으며($r=.132$, $p<.05$)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r=.157$, $p<.01$) 유행하는 옷을 즐겨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생활실용성의 경우 남학생은 BMI가 높고($r=.179$, $p<.01$) 독특한 옷이나 유행하는 옷을 입지 않을수록($r=-.142$, $p<.05$), 여학생은 BMI가 높고($r=.172$, $p<.01$) 경제적으로 알뜰한 생활태도를 갖출수록($r=.159$, $p<.01$) 실용적인 의생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주거실내공간의 기능성($r=.116$, $p<.05$)과 심미성($r=.160$, $p<.01$)을 중시하는 것이 행복지수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어, 자신이 거주하는 실내공간을 편리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에 관심이 높은 여학생은 그렇지 않은 여학생보다 행복하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편리함과 아름다운 실내장식 등의 주거가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유형의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주거만족도가 높음이 드러난 Kim & Noh(2008)의 연구와 주거만족도가 높으면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Park 2011; Bae 2012)에서, 주거가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태도가 행복감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상한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 하겠다.

Table 2.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variables for male college student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Grade	1																	
2. BMI	.030	1																
3. Subjective obesity	.008	.680**	1															
4. Allowance satisfaction	-.030	.156*	.021	1														
5. Economic level	-.074	-.062	-.105	.331**	1													
6. Major satisfaction	-.103	-.097	-.095	.205**	.162*	1												
7. Peer satisfaction	.080	-.144*	-.172*	.071	.070	.270**	1											
8. Happiness index	.100	-.087	-.112	.141*	.177**	.350**	.604**	1										
9. Self-esteem	.142*	-.090	-.129	.010	.054	.262**	.419**	.753**	1									
10. Economic lifestyle	.174**	-.016	-.036	.130	.134*	.162*	.172**	.250**	.262**	1								
11. Clothing aesthetics	-.045	-.122	-.012	-.028	.041	.048	-.033	.032	-.002	.097	1							
12. Clothing practicality	-.040	.179**	.063	.113	.004	-.012	.073	.085	.118	.097	-.142*	1						
13. Regular exercise	.066	.122	.001	.168**	.018	.066	.057	.226**	.217**	.213**	.137*	.247**	1					
14. Sleep satisfaction	.000	.024	.060	.173**	.141*	.141*	.155*	.191**	.125	.113	.133*	.061	.098	1				
15. Nutritional balance	.053	.066	.038	.101	.055	.190**	.121	.119	.158*	.090	.146*	.108	.194**	.061	1			
16. Stress eating	.061	.283**	.338**	.021	-.055	-.134*	-.221**	-.155*	-.162*	-.068	.178**	-.127	.038	.022	.037	1		
17. Dwelling functionality	-.022	-.013	-.036	.092	.025	.173*	.066	.068	.122	.171**	-.110	.299**	.099	-.076	.158*	-.126	1	
18. Dwelling aesthetics	-.016	-.016	.023	.110	.164*	.104	.040	.108	.157*	.088	.428**	-.060	.085	.083	.169*	.104	.270**	1

* p<.05, ** p<.01.

Table 3.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variables for female college student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 Grade	1																		
2. BMI	-.027	1																	
3. Subjective obesity	-.118*	.491**	1																
4. Allowance satisfaction	.064	.014	-.060	1															
5. Economic level	-.045	-.043	-.078	.277**	1														
6. Major satisfaction	-.010	-.065	-.080	.160**	.083	1													
7. Peer satisfaction	-.027	.035	.053	.179**	.120*	.454**	1												
8. Happiness index	-.001	-.075	-.128*	.170**	.160**	.352**	.517**	1											
9. Self-esteem	.110*	-.061	-.137*	.229**	.245**	.300**	.377**	.650**	1										
10. Economic lifestyle	.059	-.097	-.158**	.017	.099	.189**	.070	.224**	.232**	1									
11. Clothing aesthetics	-.019	-.110*	-.026	.027	.077	.132*	.095	.066	.157**	-.097	1								
12. Clothing practicality	.028	.172**	.055	.026	-.056	.097	.012	.020	.015	.159**	-.089	1							
13. Regular exercise	.140*	.050	-.011	.078	.093	.088	.065	.078	.019	-.004	.135*	.008	1						
14. Sleep satisfaction	.003	.018	-.058	.089	.042	.075	.096	.102	.073	-.035	.036	.142**	.064	1					
15. Nutritional balance	.096	-.005	.060	.112*	.024	.171**	.131*	.096	.090	.020	.189**	.140**	.162**	.100	1				
16. Stress eating	.013	.222**	.309**	-.002	-.103	.027	-.027	-.146**	-.114*	-.113*	.061	.096	.099	-.008	.147**	1			
17. Dwelling functionality	-.021	.098	.072	.075	-.016	.098	.099	.116*	.105	.073	-.046	.340**	.027	-.038	.142**	.039	1		
18. Dwelling aesthetics	-.001	-.099	.037	.067	.047	.108*	.216**	.160**	.198**	-.013	.377**	.001	.050	-.073	.195**	.045	.413**	1	

* p<.05, ** p<.01.

한편,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행복지수에 유의하게 정적 관련성을 나타낸 변인은 남녀 공통적으로 용돈만족도($r=.170, p<.01$; $r=.141, p<.05$), 경제수준($r=.160, p<.01$; $r=.177, p<.01$) 및 경제생활태도($r=.224, p<.01$; $r=.250, p<.01$)와 자아존중감($r=.650, p<.01$; $r=.753, p<.01$), 전공만족도($r=.352, p<.01$; $r=.350, p<.01$), 친구만족도($r=.517, p<.01$; $r=.604, p<.01$)였다. 즉, 남녀 모두 용돈만족도가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경제생활태도가 신중하고 알뜰하며 합리적일수록 행복감을 더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이 높고 전공과 친구와의 관계에서 만족할수록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요인과 심리적 요인이 행복과 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들(Kim & Park 2006; Park & Kim 2009; Cho 2011; Heo et al. 2014)과 유사한 결과로, 경제적 측면과 심리적 측면은 남녀 모두에게서 행복과 관련되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상관분석에서 행복지수와 유의한 관계를 나타낸 변인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남녀 대학생 각각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았다.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남학생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아존중감($\beta=.566, p<.001$), 친구만족도($\beta=.330, p<.001$), 경제수준($\beta=.105, p<.01$), 전공만족도($\beta=.090, p<.05$), 그리고 규칙적 운동($\beta=.078, p<.05$)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인

들은 남학생의 행복지수를 69.1%나 설명하고 있어 높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들 중 특히 자아존중감과 친구만족도의 변인은 경제수준보다 행복지수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행복이 소득과 같은 객관적이고 외적인 요인보다 정서적 지원을 포함한 심리적 요인에 의해 더 많이 영향을 받으며(Kim & Park 2006; Park & Kim 2009, Cho 2011; Suh & Koo 2011; Heo et al. 2014), 돈이 행복의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는 연구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었다(Park & Kim 2009).

여학생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beta=.522, p<.001$), 친구만족도($\beta=.314, p<.001$), 스트레스성 과식($\beta=-.079, p<.05$)이었으며, 이 변인들은 행복지수를 50.9%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경우에서와 같이 여학생에서도 자아존중감과 친구만족도 같은 심리적 변인들이 행복지수를 결정하는데 주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행복은 돈이 아니라 정서적 지원 및 자신의 긍정적, 심리적 상태에 더 많이 달려있음을 알 수 있었다(Kim & Park 2006; Park & Kim 2009; Cho 2011; Suh & Koo 2011; Heo et al. 2014). 그러나 여학생의 경우 남학생과 달리 경제수준, 전공만족도, 규칙적 운동과 같은 변인은 행복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신 스트레스성 과식이 행복지수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밝혀졌다.

Lee(2004)의 연구 결과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남학생은 여학생보다 합리적이고 알뜰한 소비패턴을

Table 4. Estimation results for the happiness index of male college students (N=217)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ed coefficient		β	t	F	R ²
	B	S.E.				
(Constant)	-17.617	4.179		-4.216		
Self-esteem	9.079	.704	.566	12.888***		
Peer satisfaction	4.273	.558	.330	7.663***	94.476	.691
Economic level	1.565	.577	.105	2.712**		
Major satisfaction	1.038	.468	.090	2.216*		
Regular exercise	.753	.379	.078	1.990*		

* p<.05, ** p<.01, *** p<.001.

Table 5. Estimation results for the happiness index of female college students (N=339)

Independent variable	Nonstandardized coefficient		β	t	F	R ²
	B	S.E.				
(Constant)	5.406	3.771		1.434		
Self-esteem	8.304	.659	.522	12.604***	115.702	.509
Peer satisfaction	4.006	.526	.314	7.621***		
Stress eating	-.633	.307	-.079	-2.062*		

*p<.05, ***p<.001.

나타내고 있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경제적인 면에 현실적으로 더 신경을 쓰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제수준에 대한 인식이 행복지수를 결정하는데 영향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공만족도의 경우도 남학생은 행복지수를 설명해주는 유의한 요인이었으나 여학생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미래의 직업이나 결혼생활에 대해 더 숙고하며, 보다 성숙한 태도를 나타내었다(Jang 2010)는 점을 고려할 때,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났는지 납득할 수 있다. 한편 외모에 대해 관심이 많은 여학생은 스트레스로 인해 과식을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스스로 체중을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 이로 인해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Nam & Lee(2014)의 연구에서도 규칙적인 식사를 하는 대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더 행복하다고 보고하였다. 또 한편으로, 남학생의 경우는 여학생과 달리 규칙적 운동이 행복지수를 결정하는데 유의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남자가 여자보다 운동을 더 좋아하며 중요하게 여기는 일반적인 경향을 반영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IV.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경제생활관련 요인과 심리적 요인 뿐만 아니라 식생활, 의생활, 그리고 주생활 관련 요인이 대학생의 행복과 어떤 관련성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대학생 570명(남 222명, 여 348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행복지수, 건강, 식·의·주, 경제, 심리 분야의 72개 문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모든 자료는 윈도우용 SPSS Statistics 21.0을 이용하여 각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분석하였고, 대상자특성에 대한 남녀별 차이는 독립표본 t-test로, 변인들 간의 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행복지수 관련요인 분석을 위해 행복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상관분석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행복지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나 경제생활태도와 자아존중감을 비롯한 다양한 변인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에 비해 더 유의하게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남학생은 여학생에 비해 실용적 생활방식과 합리적인 경제생활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서 행복지수에 유의하게 정적 관련성을 나타낸 변인은 남녀 공통적으로 용돈만족도, 경제수준 및 경제생활태도와 자아존중감, 전공만족도, 그리고 친구만족도였다. 또한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남학생의 경우 자아존중감, 친구만족도, 경제수준, 전공만족도, 규칙적 운동 순이었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자아존중감, 친구만족도, 스트레스성 과식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의생활과 주생활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의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남학생의 경우 경제수준, 전공만족도, 운동이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여학생의 경우는 스트레스성 과식이 행복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생의 행복은 정서적, 물질적, 신체적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자아존중감과 친구만족도와 같은 정서적 요인들이 경제수준이나 규칙적 운동과 같은 물질적 또

는 신체적 요인들보다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 있어서 행복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한 지역의 대학교에서 조사한 자료를 분석한 것이므로 이를 대학생 전체로 일반화할 수는 없겠으나, 행복지수에 영향을 주는 경제생활 관련 요인과 심리적 요인 뿐 아니라 의식주생활을 통합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행복지수에 대한 기초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References

- Bae JH(2012) Effect of Residential factors on life satisfaction among rural elders. *J Community Welf* 42, 1-25
- Cho YR(2011) A qualitative study on the happiness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pp31-60
- Chung HK, Kim MH, Woo NRY(2007) The effect of life stress on eating habit of university students in Chungcheongnam-do province. *Korean J Food Cult* 22(2), 176-184
- Ha JS, Yoon JW(2003) Housing values and condominium purchasing behavior among married women. *J Korean Home Manag Assoc* 21(6), 97-106
- Han MS, Chung MH(2000) A study on clothing purchasing behavior and value of college students. *Res J Costume Cult* 8(4), 602-610
- Helliwell JF, Huang H, Wang S(2015) The geography of world happiness. In: Helliwell JF, Layard R, Sachs J, eds. *World happiness report 2015*. New York: Sustainable Development Solution Network, pp12-41
- Heo CR, Koo JS, Suh EK(2014) Happiness after basic needs are fulfilled: Social needs become salient. *Kor J Soc Pers Psychol* 28z(2), 59-78
- Hwang KH, Yang SH(2000) The trends and related factors of housing values and preferences of adolescents in Ulsan. *J Human Ecol* 2(1), 89-101
- Jang HS(2010) The effects of achievement of developmental tasks in adolescence on 5-factor personality characteristics, self-esteem and happiness. *Kor J Dev Psychol* 23(2), 1-17
- Jeon J, Bae EJ(2007) Difference between self-esteem and family cohesiveness by university students' demographical variances. *Korea J Couns* 8(3), 807-817
- Jeong WS, Lee HS, Park UI(2003) Wearing, dietary and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obese children. *J Korean Home Econ Assoc* 41(1), 155-167
- Kim IH, Lim JY(2010) The effect of body image on clothing behavior and weight control of female college student. *Proceedings 2010 Summer Symposium of Korean Association of Human Ecology*, pp111-112
- Kim JE, Han JW(2012)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interior coordination execution by apartment residents in accordance with lifestyles. *J Korean Hous Assoc* 23(3), 43-52
- Kim MH, Noh SH(2008) Housing values and satisfa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Gwangju and the Chonnam area. *J Korean Hous Assoc* 19(4), 11-20
- Kim UC, Park YS(2006)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in Korean society. *Kor J Psychol: Cul Soc-issues* 12(5), 1-28
- Kuh JM, Lee MH(1999) A study on consumer values, clothing shopping orientation, and clothing satisfaction. *J Korean Soc Clo Text* 23(3), 459-470
- Lee HJ, Park SB(2013) Study on users' housing and interior design needs affected by personality types. *J Korean Institute Inter Des* 22(6), 88-97
- Lee HS, Jeong WS, Park UI(2003) The dietary behavior of obese and normal weight elementary school children with maternal guidance for their dietary behavior. *Korean J Community Nutr* 8(6), 831-839
- Lee JH(2004) A study on the sense of economic and consumer behavior for Osan College student. *A study on student life* 9, 77-111
- Lee YJ(2011) The efforts for becoming happy of college students. *Asian J Edu* 12(2), 63-84
- Lim MH, Park YS, Kim UC(2007)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personality,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on subjective well-being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n J Youth Stud* 14(5), 255-283
- Marsh HW(1993) Self-esteem stability and responses to the stability of self scale. *J Res Pers* 27(3), 253-269
- Nam MH, Lee MR(2014) Factors influencing subjective happiness index of health behavior, self esteem and major satisfaction by nursing students. *J Digital Convergence* 12(10), 363-374
- Park KA(2009) Dietary habits, body weight satisfaction and eating disorders according to the body mass index of female university students in Kyungnam province. *J East Asian Soc Diet Life* 19(6), 891-908
- Park HS, Mun SY(2014) Mediator effect of school life adaptation affecting relationships between university students' happiness, self-respect and social support. *Korean J Local Gov Adm Stud* 28(3), 197-218
- Park HW, Kim H, Lim SJ(2005) A study on clothing behavior and clothing purchasing behavior based on value of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Soc Clothing Text* 29(1), 103-113.
- Park JM, Yoon CS, Park ES(2011)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preferred housing interior image and sensibility of university students. *J Korean Hous Assoc* 22(6), 97-106

- Park SB(2011) Residential factors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Korean Public Adm Q* 23(3), 731-760
- Park UI, Jeong WS, Lee HS(2005) Effects of self-perceived obesity, peer victimization, stresses, and maternal child rearing behaviors on the self-esteem of obese and normal weight elementary school children. *Korean J Child Stud* 26(6), 393-409
- Park YS, Kim UC(2006) Factors influencing quality of life for individuals and Korean society: Indigenous psychological analysis across different generations. *Korean J Psychol: Cul Soc-issues* 12(1) 161-195
- Park YS, Kim UC(2009) Psychological, relational and financial resources: How do they influence happiness among Koreans. *Korean J Psychol: Cul Soc-issues* 15(1), 95-132
- Park YS, Tsuda A, Kim UC, Han KH, Kim EY, Horiuchi S(2009) Factors influencing stress and depression among Korean and Japanese students: With specific focus on parental social support, resiliency of efficacy and stress management behavior. *Korean J Psychol: Cul Soc-issues* 15(1), 1-28
- Statistics Korea(2013) 2013 Causes of death statistics. Available from <http://www.kostat.go.kr> [cited 2015 July 13]
- Suh EK, Koo JS, Lee DG, Jung TY, Choi IC(2010) Koreans' happiness index and its meanings.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nual Conference Program & Abstract*, pp213-232
- Suh EK, Koo JS(2011) Happiness in Korea: Who is happy and when?. *Korean J Soc Pers Psychol* 25(2), 143-166